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nterpersonal Stress and Attitude toward Help on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이민정*, 정구철**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Min-Jung Lee(counselormj@hanmail.net)*,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고학년 171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분산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행복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도움추구태도는 행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와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도움추구태도의 하위요인 중 부모와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부모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부모 및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교사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초등학생의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스트레스 | 도움추구태도 | 행복 | 대인관계 | 초등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stress and attitudes toward help on happiness. The subjects were 171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stress and happiness. Attitudes toward help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appiness. Second,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 stress had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happiness. Third, help seeking attitude toward parents and teacher among the sub-factors of help seek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happiness.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happiness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parents and teacher attitude toward help.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tress and happiness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eacher attitude toward help.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stress and happiness had no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 help.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attitude toward hel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ppiness.

■ keyword : | Stress | Help | Happines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Elementary School Student |

* 이 논문은 2017년 삼육대학교 교내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씌여짐.

접수일자 : 2018년 04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5월 27일

수정일자 : 2018년 05월 25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자화상입니다.” 이는 한 방송사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로 시청자들에게 행복의 의미에 대해 상기시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1]. ‘2017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최근 8년 동안이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 다른 연령대보다도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의 자살수가 641명이나 달할 만큼 상당하여[6], 이 시기 아동들의 행복감, 삶의 만족과 관련한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복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연령일 때 경험한 행복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삶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힘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7][8].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적 환경이 학교로 확장되면서 규칙,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러나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인과 유사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보다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욱 부정적일 수 있다[9].

실제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한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겪는 주요 스트레스는 부모의 사망, 이혼과 같은 큰 외상적 사건보다는 주로 학업, 부모나 친구관계, 교사와의 갈등 등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사건들에서 비롯한다고 보고하였다[10][11]. 이러한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반복적인 일상 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복을 예언하는 주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12][13].

아동들이 겪는 일상 스트레스 중에서 정동화[14]는

주로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친구, 가족 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5]. 한미현과 유안진[16]은 아동들이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요구 받거나 친구와의 갈등을 겪고, 교사가 보이는 학생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주로 불만족스러운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요인과 아동들의 학업수행 저하, 긴장, 걱정, 불만과 같은 아동의 행복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리적 반응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인관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일상 안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에 있는 만큼 이에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 수 있다[17].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행복한 삶을 위해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들의 행복한 삶과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사 또는 교우관계가 이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고[3][18-22], 임미향과 박영신[23]의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은 부모, 교사, 교우와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의 도움추구태도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겠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루고 해소하기까지 개인에 따라 내외적 변수가 다르게 작용하겠지만, 그중에서 도움추구태도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8]. 도움추구태도는 고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여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처전략 중 하나이다[29]. 손태주 등[30]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부모, 교사 등의 주변 지지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움추구태도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구철과 이민정[2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 특히, 교사와 같은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도움추구행동을 하기 까지만 인간은 자신의 문제가 도움추구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선택하고 실제로 가족, 교사, 교우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따르게 된다[31-33].

전문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나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경우 그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다양한 주변 환경 요인에 취약해 자칫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6]. 따라서 아동들은 이러한 도움추구행동의 과정을 통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대인관계 갈등,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완충과 예방행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4-36].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나 교사, 교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여 초등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다.
- 둘째,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5학년 2개 학급, 6학년 3개 학급 총 7개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에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조사 실시 전 학교의 허락을 득하였으며, 각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후 각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재배치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무기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 전 학생들에게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 신상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설문조사 후에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172부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총 171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4학년이 48명(28.1%), 5학년이 48명(28.1%), 6학년이 75명(43.9%), 남학생이 87명(50.9%), 여학생이 84명(49.1%)이었다.

2. 연구 도구

2.1 대인관계 스트레스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과 유안진[16]이 개발한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조동윤[17]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련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대상에 따라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여 총 2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문항은 부모, 교사, 교우를 대상으로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등의 문항으로 각 대상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은 각 관계별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따라 대인관계 스트레스 문항을 다수 개발하였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축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3개로 지정하였다. 요인분석 후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이 매우 낮은 1개 문항(.11)을 제거하였다. 재분석 결과 KMO값은 .86으로 기준 값인 .70보다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2334.83$, $p<.001$), 자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25이상으로 나타났고, 3개 요인의 총 분산은 50.1%였다. 각 문항은 문항 구성계획대로 부모와 교사와 교우관계 스트레스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요인계수는 모두 .39이상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문항은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7문항, 교사관계 스트레스가 8문항,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9문항으로 총 24문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부모 .81, 교사 .88, 교우 .91이었다.

2.2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는 Fisher와 Turner[27]가 개발하였으며, 손태주 등[30]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다시 초등학생의 언어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도움추구태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 “심각한 문제를 (부모님)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8개의 문항을 도움추구 대상인 부모, 교사, 교우로 바꾸어가며 반복 측정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

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인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상의 차이만 있고 문항 내용은 동일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8문항을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 수는 1개로 지정하였다. 분석 결과, KMO값은 .74로 기준 값인 .70보다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696.03$, $p<.001$), 자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은 .30이상으로 나타났고, 총 분산은 42.8%였으며, 요인계수도 .55이상으로 나타났다. 총 24문항의 도움추구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높게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부모 .90, 교사 .87, 교우 .88이었다.

2.3 행복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Argyle[37]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The Revised Oxford Happiness Scale)를 권석만[3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행복척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과 정서 경험, 행복 수준을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으로 문항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등이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선행연구들에서 하위요인에 대한 보고가 없으며, 선행연구에서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므로 1개로 지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성이 매우 낮은 1개 문항(.14)을 제거한 후 재분석 하였다. 재분석 결과 KMO값은 .93으로 기준 값인 .70보다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2055.33$, $p<.001$), 자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

은 .25이상으로 나타났고, 총 분산은 47.4%였으며, 요인 계수는 모두 .49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종 아동의 행복 척도는 20문항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등학생 행복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및 왜도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추출방법은 주축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는 Preacher와 Hayes[39]의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의 차이 (N=171)

변수	대인관계 스트레스		도움추구태도		행복				
	M(SD)	F	M(SD)	F	M(SD)	F			
성별									
남학생	40.05(11.17)	1.88	70.52(12.51)	.28	60.57(12.36)	2.15			
여학생	42.59(13.01)		69.42(14.35)		57.65(13.67)				
학년									
4학년 ^a	36.52(9.69)	8.08***	73.33(12.85)	19.15***	61.63(10.38)	15.60***			
5학년 ^b	40.24(12.98)		(a,c)		76.58(12.36)		(a,b,c)	65.42(12.19)	(a,b,c)
6학년 ^c	45.04(11.92)		63.61(11.61)		53.53(12.95)				

***p<.001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로 분석한 결과 모두 절대값이 1.27보다 작게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표 1. 주요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N=17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41.30	12.14	.91	.84
부모	14.39	4.66	.30	-.67
교사	11.85	4.65	1.27	.91
교우	15.07	6.15	.84	.06
도움추구태도	69.98	13.42	-.31	-.24
부모	24.63	5.70	-.41	-.62
교사	21.29	5.23	-.34	-.14
교우	24.06	5.13	-.84	.98
행복	59.14	13.06	-.30	-.7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행복의 차이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차이 검정결과에서 4학년보다 6학년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F=8.08, p<.001), 도움추구태도(F=19.15, p<.001)와 행복(F=15.60, p<.001)은 4학년과 5학년보다 6학년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고학년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은 더 높고, 도움추구태도와 행복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대인관계 스트레스,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 간의 상관관계 (N=171)

	(1)	(1-1)	(1-2)	(1-3)	(2)	(2-1)	(2-2)	(2-3)
(1) 대인관계 스트레스								
(1-1) 부모	.70***							
(1-2) 교사	.81***	.41***						
(1-3) 교우	.81***	.33***	.54**					
(2) 도움추구태도	-.34***	-.27***	-.23**	-.19**				
(2-1) 부모	-.34***	-.33***	-.23**	-.14	.87***			
(2-2) 교사	-.33***	-.30***	-.33***	-.18*	.86***	.70***		
(2-3) 교우	-.06	.01	-.06	-.17*	.76***	.45***	.47***	
(3) 행복	-.43***	-.33***	-.34***	-.30***	.60***	.55***	.59***	.36***

*p<.05, **p<.01, ***p<.001

3.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 간의 상관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및 행복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3],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도움추구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34, p<.001$), 행복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3, p<.001$). 도움추구태도는 행복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r=.60,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 및 교우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행복과 유사한 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움추구태도의 경우 부모와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교우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보다 상대적으로 행복과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표 4]. 행복을 준거변수로 설정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을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I에 학년을 통제한 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총 26.3%의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R^2=.263, F=19.87, p<.001$). 모형 I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 p<.001$). 모형 II에 도움추구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17.4%p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174, F=51.30,$

표 4. 행복에 대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171)

변인	모형 I		모형 II		VIF
	B	β	B	β	
학년(4학년)					
5학년	5.16	.18*	3.24	.11	1.48
6학년	-4.96	-.19*	-1.41	-.05	1.68
대인관계 스트레스	-.37	-.34***	-.26	-.24***	1.16
도움추구태도			.46	.48***	1.30
R ²	.263		.437		
F	19.87***		32.21***		

*p<.05, ***p<.001

표 5. 행복에 대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도움추구태도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171)

변인	모형 I		모형 II		VIF
	B	β	B	β	
학년(4학년)					
5학년	5.26	.18*	3.87	.13	1.53
6학년	-5.11	-.19*	-.75	-.03	1.80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모	-.50	-.18*	-.14	-.05	1.45
교사	-.20	-.07	-.11	-.04	1.77
교우	-.40	-.19*	-.37	-.17*	1.55
도움추구태도					
부모			.47	.21*	2.24
교사			.79	.32***	2.40
교우			.13	.05	1.60
R ²	.266		.451		
F	11.96***		16.65***		

*p<.05, ***p<.001

$p<.001$), 총 43.7%의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R^2=.437, F=32.21, p<.001$). 최종모형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여전히 행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24, p<.001$), 도움추구태도는 행복에 가장 강한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8, p<.001$). 최종모형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면 모두 1.68이하로 나타나 예측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고, Durbin-Watson 값도 1.77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행복에 대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의 하위 요인인 부모, 교사 및 교우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의 가정 검증을 위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의 하위요인들을 모두 투입한 최종모형의 VIF값을 살펴보면 모두 2.4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도 1.81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학년을 통제 한 후,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모형 I), 모형의 설명량은 26.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R^2=.266$, $F=11.96$, $p<.001$), 부모관계 스트레스($\beta=-.18$, $p<.05$)와 교우관계 스트레스($\beta=-.19$, $p<.05$)가 행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 II에서 도움추구태도의 하위요인들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량은 18.5%p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185$, $F=18.22$, $p<.001$), 총 45.1%의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R^2=.451$, $F=16.65$, $p<.001$). 최종모형의 도움추구태도에서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2$, $p<.001$),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beta=.21$, $p<.05$). 한편 도움추구태도가 투입된 최종모형에서는 교우관계 스트레스만 유의한 부적 설명변수로 남았다($\beta=-.17$, $p<.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교우관계스트레스와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들의 행복에 보다 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는 초등학생들의 행복에 있어 강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Preacher와 Hayes[39]의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부모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6], 모형의 총 설명량은 41.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2=.419$, $F=19.75$, $p<.001$). 초등학생의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부모($B=-.36$, $p<.001$) 및 교사($B=-.30$, $p<.001$)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종속변수인 행복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72$, $p<.001$). 모형 III에서 부모($B=.42$, $p<.05$)와 교사($B=.81$, $p<.001$)의 도움추구태도는 행복

표 6.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N=171)

모형	경로	B(95% CI)
I	부모 스트레스→부모 도움추구태도	-.36***
	부모 스트레스→교사 도움추구태도	-.30***
	부모 스트레스→교우 도움추구태도	.04
II	부모 스트레스→행복	-.72***
III	부모 도움추구태도→행복	.42*
	교사 도움추구태도→행복	.81***
	교우 도움추구태도→행복	.22
매개효과	부모 스트레스→부모 도움추구태도→행복	-.15 (-.34~-.01)
	부모 스트레스→교사 도움추구태도→행복	-.24 (-.48~-.09)
	부모 스트레스→교우 도움추구태도→행복	.01 (-.02~.09)

주. 학년을 통제하였음.
* $p<.05$, *** $p<.001$

표 7. 교사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N=171)

모형	경로	B(95% CI)
I	교사 스트레스→부모 도움추구태도	-.15
	교사 스트레스→교사 도움추구태도	-.23**
	교사 스트레스→교우 도움추구태도	.03
II	교사 스트레스→행복	-.68**
III	부모 도움추구태도→행복	.50*
	교사 도움추구태도→행복	.77***
	교우 도움추구태도→행복	.21
매개효과	교사 스트레스→부모 도움추구태도→행복	-.07 (-.24~.01)
	교사 스트레스→교사 도움추구태도→행복	-.18 (-.39~-.04)
	교사 스트레스→교우 도움추구태도→행복	.01 (-.01~.08)

주. 학년을 통제하였음.
* $p<.05$, ** $p<.01$, ***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B=-.32, p<.05),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도움추구태도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부모 도움추구태도(B=-.15, 95% CI=-.34~-.01)와 교사 도움추구태도(B=-.24, 95% CI=-.48~-.09)를 통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7], 모형의 총 설명량은 42.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²=.427, F=20.43, p<.001).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교사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23, p<.01), 종속변수인 행복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8, p<.01). 모형 III에서 부모(B=.50, p<.05)와 교사(B=.77, p<.001)의 도움추구태도는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교사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B=-.42, p<.05),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교사관계 스트레스가 도움추구태도를 통해 행복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교사 도움추구태도를 통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18, 95% CI=-.39~-.04).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표 8], 모형의 총 설명량은 44.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²=.448, F=22.21, p<.001).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교우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14, p<.05), 종속변수인 행복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7, p<.001). 그러나 모형 III에서 교우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교우 도움추구태도를 통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를 감소시켜 행복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교사관계 스트레스는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를 감소시켜 행복을 유의하게 낮추었고,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초등학생의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부모, 교사,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모두 행복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부모와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SCL-90-R)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초등학생들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는 점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생활적응은 부모 및 교우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대인관

표 8.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N=171)

모형	경로	B(95% CI)
I	교우 스트레스→부모 도움추구태도	-.09
	교우 스트레스→교사 도움추구태도	-.10
	교우 스트레스→교우 도움추구태도	-.14*
II	교우 스트레스→행복	-.57***
III	부모 도움추구태도→행복	.50**
	교사 도움추구태도→행복	.84***
	교우 도움추구태도→행복	.07
	교우 스트레스→행복	-.43**
매개효과	교우 스트레스→부모 도움추구태도→행복	-.04 (-.15~.01)
	교우 스트레스→교사 도움추구태도→행복	-.09 (-.22~.01)
	교우 스트레스→교우 도움추구태도→행복	.01 (-.09~.04)

주. 학년을 통제하였음.
*p<.05, **p<.01, ***p<.001

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40].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부모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행복의 위험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전화 '1388'에 호소한 문제 유형 중 '정보제공'을 제외하면,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43,744건), 다음으로 '정신건강'(35,525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위험과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41]. 초등학생을 포함한 9세 이상의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42]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보호요인의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자원만으로는 교우관계의 불균형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도움 요구를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자에게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한 '초등학생용 긍정심리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43]. 단기 프로그램이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연극과 명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행복감은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스트레스 완화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통제할 후 도움추구태도를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교사와 부모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높을수록 행복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행복에 관한 보호요인으로서 특히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긍정적인 것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에서 초등학교 5학년 6,901명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부모만족도와 교사 및 교우관계 만족도 중에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과 교사 만족도가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나 또래와의 관계보다는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강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18]. 초등학생은 아직 발달

단계 상 아동기에 속해 있으며, 또래집단보다는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발생하는 부모나 교우관계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힘을 얻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교사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교사보다는 약하게 나타났지만,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 역시 초등학생들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는 안전한 가정에서의 도움추구 행위인 반면, 교사는 학교라는 장면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생상담 능력의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상담을 비롯하여 학생면담을 위한 상담기법의 교육을 교사 연수를 위한 시간이나 평점에 반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를 통해 행복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교사관계 스트레스는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를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도움추구태도의 유의한 매개효과 없이 초등학생의 행복을 저하시키는 직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들의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도움추구태도의 매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청소년기보다 적다고 하여도, 학교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둠활동과 현장학습 등을 고려해 볼 때 또래집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행복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나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는 교우관계 스트레스를 통제

해도 유의하게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래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부모 및 교사에 대한 도움추구태도가 행복에 더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것을 밝혔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이 4학년이나 5학년보다 행복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와 교사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래관계 스트레스는 4학년보다 5, 6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1]. 청소년들의 일상 스트레스와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보다 중학교 3학년의 행복감이 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23],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복이 성장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어 가는 것과는 반대로 행복이 감소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등학생의 행복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7], 성차보다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환경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표집 지역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일반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례수가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최소 수준 이상이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사례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법 등의 방법을 통한 확장된 형태의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행복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초등학생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용어의 선정과 문장의 표현이 적절하게

구성된 도구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태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용이나 청소년용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일부분 검증은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이론적 틀에 의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 도구들의 개발을 촉구한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조사 영역을 넓혀 다양한 스트레스원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도구는 부모와 교사 및 친구들이 행하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폭넓은 스트레스의 측정과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타자들을 중심으로 도움추구태도의 중요성과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0121, 2017.04.10.
- [2] <http://www.ajunews.com/view/20171219180111691>, 2017.12.22.
- [3] 김현숙,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와 양부모의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제55권, pp.113-141, 2016.
- [4] 서경현,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2호, pp.137-157, 2012.
- [5]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pp.217-235, 2012.
- [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5_0014268403, 2016.12.28.

- [7] 김연화,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2호, pp.287-307, 2010.
- [8] N. park,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591, pp.25-39, 2004.
- [9] 정복순,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의 관계*,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0] 민하영,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75-185, 2009.
- [11] 박정원, 정유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건강상태,” 대한스트레스학회, 제20권, 제4호, pp.309-320, 2012.
- [12] 서은국, 주관적 안녕감과 최근 연구 동향.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3-18, 2004.
- [13] 임지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환경 요인과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1호, pp.853-861, 2017.
- [14] 정동화, “아동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제19권, pp.157-183, 2003.
- [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1751.html, 2017.09.27.
- [16] 한미현, 유안진,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 제33권, 제4호, pp.49-64, 1995.
- [17] 조동윤,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통제소재 및 공격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8] 최지은, 신용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41권, 제2호, pp.199-210, 2003.
- [19] 김의철, 박영신,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13권, pp.171-901, 2004.
- [20]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pp.149-188, 2012.
- [21] J. K. Spilt, H. M. Y. Koomen, and J. Thijs, “Teacher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3, pp.457-477, 2011.
- [22] 이은아김, 이은수, 이혜진, 정유진, 유미숙, “교사-학생 관계 증진 훈련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상담연구, 제14권, 제3호, pp.337-358, 2015.
- [23] 임미향, 박영신,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2권, pp.159-179, 2006.
- [24] 정구철, 이민정,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기표현과 도움추구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268-280, 2017.
- [25] A. Cepeda-Bentio and P. Short,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vice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pp.58-64, 1998.
- [26] K. M. Cramer,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6, pp.381-387, 1999.
- [27] E. H. Fisher and J. Tuner,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5, pp.75-90, 1970.
- [28] A. E. Kelly and J. A. Achter,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2, No.1, pp.40-46, 1995.
- [29] E. A. Skinner, K. Edge, J. Altman, and H.

Sherwood,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129, pp.216-269, 2003.

[30] 손태주, 박태수, 김성봉, "중학생의 애착유형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2권, 제1호, pp.191-202, 2011.

[31] A. E. Gross and P. A. McMullen, "Models of the help-seeking process," *New directions in helping*, Vol.2, pp.45-61, 1983.

[32] 장진이, *자기 은폐(self-concealment)와 정서 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3] 김주미, 유성경,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991-1002, 2002.

[34] 김분,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또래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5] 신현숙, 구본용,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pp.189-225, 2001.

[36] W. Sharp, D. Hargrove, L. Johnson, and W. P. Deal, "Mental Health Education: An evaluation of a classroom based strategy to modify help 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7, No.4, pp.419-43, 2006.

[37] Argyle, *Happy Psychology, 행복심리학*, 김동기 역, 서울: 학지사, 2005.

[38]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39] K. J. Preacher and A. F.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0,

pp.879-891, 2008.

[40]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제21권, 제1호, pp.51-60, 2013.

[41]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7.

[42]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 2017.

[43] 김은진, 고시용, "초등학생의 긍정적 심리 향상을 위한 방학 중 단기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604-614, 2013.

저 자 소 개

이 민 정(Min-Jung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사)
- 2014년 8월 :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임상 및 상담심리전공(심리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박사과정)

• 2013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상담심리, 건강심리, 학교심리, 심리측정 · 평가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상담심리